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송 성 회**

목 차

- I. 서 론
- II. 평범한 시민의 한계와 사회현실
- III. 조화된 교양에의 길과 빌헬름의 오류
- IV. '보이지 않는 손'과 해피엔딩
- V. 결 론

I. 서 론

설명할 길이 없는 자주적인 배아에서 개성이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이 발전은 외부상황을 통해서는 오로지 도움만 받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 소설 전체는 고유의 생활력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주위 세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일이 결코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되는 일 또한 결코 없는 실제의 자연에 가까와지고 있다.¹⁾

위에 인용한 글은 괴테의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에 쾨르너(Christian Gottfried Körner: 1756~1831)가 보인 반응이다. 그는 실러와 이 소설에 대해 상론하면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 괴테는 이 글이 실러의 '호펜'지에 실리기를 원했을 정도로 반겼다고 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Dept. of German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Ch. G. Körner, zitiert nach: Königs Erläuterungen u. Materialien. J. W. v. Goethe: Wilhelm Meisters Lehrjahre. 1989(7. Auflage). S. 8: Das Persönliche entwickelt sich aus einem selbständigen unerklärlichen Keime, und die Entwicklung wird durch die äußeren Umstände bloß begünstigt. Das Ganze nähert sich dadurch der wirklichen Natur, wo der Mensch, dem es nicht an eigener Lebenskraft fehlt, nie bloß durch die umgebende Welt bestimmt wird, aber auch nie alles aus sich selbst entwickelt.

소설을 독일 교양소설의 전형으로 간주하는 대부분의 견해들은 바로 이 쾨르너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을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몇몇 낭만주의자들의 비판은 특히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한 것이었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타협, 현실에서의 활동적인 순응에의 경향" (Tendenz zum pragmatischen Kompromiß, zum tätigen Sich-Einrichten in der Wirklichkeit)은 자신들이 지향했던 "모든 불화를 넘어서는 종합을 향한 끊임없는 운동" (die unabschließbare Bewegung zu einer alle Entzweigungen überwindenden Synthese)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²⁾

청년 독일파에 속하는 이들은 "개인의 발전이 너무 지나치게 순전히 내면의 영적인 일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과 국가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개인을 넘어서는 가치체계의 절대적인 고유권한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³⁾을 들어서 괴테의 이 소설을 비판했다.

한편 20세기 후반에 이 소설을 대표적인 교양소설로 보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몇몇사람⁴⁾은 주관주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관점에 서서 모든 종류의 체념과 제한을 개성의 파괴로 본다. 따라서 이들은 "주인공의 혼란, 주인공의 감정의 억제, 의무에 걸맞는 활동을 토대로 한 생활정신의 인정에 대한 불만"⁵⁾을 보인다. 이는 청년독일파의 비판가들의 입장과 같다.

고전주의 시대의 교양 사상 자체도 "기존의 사회 현실로부터 심각하게 소외당한 경험"⁶⁾에 대한 답변이었다. 실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들」에서도 "문명이 진보된 현대 사회" (die moderne, zivilisatorisch fortgeschrittene Gesellschaft)는 개인과 그 발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적대적인" (durchaus feindlich)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⁷⁾

그런데 흔히 주인공의 노력과 외부의 유리한 여건에 힘입어 주인공의 교양이상이 성취된 대표적인 독일 교양소설이라고 보는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는 당시의 독일사회가 어떤 성격의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2) J. Jacobs u. M. Krause : Der Deutsche Bildungsroman, S. 79.

3) Edward McInnes, Zwischen 'Wilhelm Meister' und 'Die Ritter vom Geist', S. 494 : daß die Entwicklung des einzelnen zu sehr als rein innerseelische Angelegenheit aufgefaßt werde und daß die überpersönliche Wertbindung an Staat und Gesellschaft in ihrem unabdingbaren Eigenrecht nicht berücksichtigt sei.

4) J. Hörisch : Gott, Geld und Glück; K. -D. Sorg : Gebrochene Teleologie.

5) J. Jacobs u. M. Markuse, a. a. O., S. 79 : ein Unbehagen an der Disziplinierung des Helden, an der Dämpfung seiner Emotionen und an der Anerkennung eines auf pflichtmäßige Tätigkeit gegründeten Lebensethos.

6) Ebd., S. 66 : die Erfahrung einer tiefen Entfremdung von der bestehenden gesellschaftlichen Wirklichkeit.

7) Ebd.

II. 평범한 시민의 한계와 사회현실

빌헬름의 성장환경은 상인계층에만 한정되어 묘사되고 있다. 빌헬름의 친구 베르너와 이들 두 사람의 아버지를 통해서 평범한 당시의 시민들의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두 아버지는 사고 방식은 달랐지만 상업을 가장 고상한 일로 여겼으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점에서는 똑같았다. 게다가 빌헬름의 아버지는 조상으로부터 “화려한 것에 대한 독특한 취향”(eine besonder Neigung zum Prächtigen) (HA, 40)⁸⁾을 물려 받았기에 “조화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인물”⁹⁾이었다. 그의 집은 천편일률적이어서 즐거움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베르너는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von den Torheiten anderer Vorteil zu ziehen) (HA, 36)을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여기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이다. 그는 “자기 일을 성취할 것, 돈을 벌 것, 가족과 함께 즐길 것, 그 밖의 세상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상으로는 상관하지 말 것”(seine Geschäfte verrichtet, Geld geschafft, sich mit den Seinigen lustig gemacht und um die übrige Welt sich nicht mehr bekümmert, als insofern man sie nutzen kann) (HA, 287)을 자신의 신념이라고 떳떳하게 밝힐 정도였다.

반면 빌헬름은 베르너와 같은 상인들이 볼 때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린 마음”¹⁰⁾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치유해 주는 것”(die Menschen von ihren Torheiten zu heilen) (HA, 37)을 가장 고귀한 즐거움이라고 여겼다. 이런 그가 상업세계에 대해서 느낀 느낌은 “두려움”(Furcht)과 “혐오”(Abscheu)였다. (HA, 32)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것만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아버지의 집에서의 생활도 그에게는 전혀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민에게 주어진 사회적 한계였다.

귀족은 행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지만, 평민은 일하여 만들어 내게 되어 있네. 평민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낱알의 능력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되지. 평민은 어느 한 가지 방면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동한히 할 수 밖에 없어서, 그의 본성에는 조화가 없으며 또한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로 되어 있네.

Jener(Edelmann) soll tun und wirken, dieser(Bürger) soll leisten und schaffen; er soll einzelne Fähigkeiten ausbilden, um brauchbar zu werden, und es wird schon vorausgesetzt, daß in seinem Wesen keine Harmonie sei noch sein dürfe, weil er, um sich

8) 본문의 괄호 안에 표기된 HA는 J. W. v. Goethe: Wilhelm Meisters Lehrjahre. Hamburgerausgabe in 14 Bänden. Hg. v. Erich Trunz. Bd. 7. München 1982를 가리키며, 그 뒤의 아라비아 숫자는 그 책의 쪽수를 가리킴.

9) G.-L. Fink: Die Bildung des Bürgers zum "Bürger", S. 8: eine unharmonische Übergangserscheinung.

10) Ebd., S. 9: ein offenes Herz für die anderen.

auf eine Weise brauchbar zu machen, alles übrige vernachlässigen muß. (HA, 291)

이런 차별은 "사회 자체의 체제" 때문임을 알면서도 빌헬름은 자신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차별이 생긴 것은 예컨대 귀족의 오만이나 평민의 비굴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체제 때문일세. 이 체제가 언젠가는 좀 달라질 것인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네, 어쨌든 나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나 자신을 생각해야 하네.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을까 궁리해야 하네.

An diesem Unterschiede ist nicht etwa die Anmaßung der Edelleute und die Nachgiebigkeit der Bürger, sondern die Verfassung der Gesellschaft selbst schuld: ob sich daran einmal etwas ändern wird und was sich ändern wird, bekümmert mich wenig; genug, ich habe, wie die Sachen jetzt stehen, an mich selbst zu denken, und wie ich mich selbst und das, was mir ein unerläßliches Bedürfnis ist, rette und erreiche. (HA, 291)

이렇게 보면 그도 역시 편협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빌헬름이 살던 시기는 평화로운 시절이 아니라 "급격한 운명의 변화" (schnelle Wechsel des Glückes) 를 가져올 수 있는 "전시(戰時)" (die Zeiten des Krieges) 였다. (HA, 193)

귀족사회도 마찬가지였다. 하프를 타는 노인과 그의 딸 미농의 삶은 이들 귀족의 비인간성의 희생물이었다. 하프타는 노인은 로타리오의 백부의 친구인 이태리 후작의 동생 아우구스틴임이 밝혀진다. 그의 아버지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늙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두려워한 나머지 막내 딸 스페라타를 이웃집에 숨겨 키웠다. 이 사실을 모르던 아우구스틴은 스페라타를 좋아하게 되고 아이까지 잉태시키게 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었던 그의 부모는 아들 아우구스틴을 수도원에 감금시킴으로써 두 사람을 격리시킨다. 그러다가 딸 미농이 실종되자 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한 스페라타도 결국 죽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우구스틴은 수도원을 탈출하여 외국으로 잠적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떠돌아 다닌다. 우연히 미농과 함께 극단을 따라다니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형인 이태리 후작이 들려준 이야기를 신부가 정리해 놓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된 아우구스틴은 결국 자살을 하고 만다. 미농은 아우구스틴이 아버지인 줄도 모른채 먼저 죽었다. 요컨대 미농과 아우구스틴의 삶은 체면을 중시한 귀족의 "자연을 저술린 행위의 결과"¹¹⁾ 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빌헬름은 생존 자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자기 확증을 발견한다. "소매상들 만큼이나 많은 억압요소" (soviel Niederdrückendes wie die Krämerei) 를 지니고 있던 당시 연극배우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꿈을 향한 길을 계속 갈 수 있기 위해 필요했던 "확신" (die Festigkeit und Sicherheit) 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버림받은 아이 미농과 고독한 노인과 함께 가족같은 느낌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²⁾ 당시의 사회 어디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

11) St. Blessin, Die Romane Goethes, S. 219: die Folge einer widernatürlichen Handlung.

12) H. Emmel, Geschichte des deutschen Romans, S. 194.

돌던 그들도 빌헬름과는 한 가족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미농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아이로 여겨지는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을 마리아네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는 동정심 때문에, 그리고 “고독하게”(in der Einsamkeit) (HA, 137) 살아가고 있는 하프타는 노인과는 진정한 교감을 나눔으로써 참된 우정의 행복을 즐겼다. 이들은 “다른 구조를 갖춘 우주의 국외자들”¹³⁾이었기에 당시의 사회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 빌헬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빌헬름이 백작의 성에서 만난 귀족들의 이미지도 “부정적”(negativ)¹⁴⁾이었다. 탐의 모임의 구성원으로 드러나게 될 야르노(Jarno)를 제외하면 후작(Fürst)만이 예외였다. 이 후작을 제외한 모든 귀족들은 “음란한 언행”(Frivolität)을 보였으며 “정신적인 편협성”(eine geistige Beschränkung)까지 보였다.¹⁵⁾

또한 6권에 나오는 귀족들도 “사회적 고립”(gesellschaftliche Isolierung) 속에서 “이기주의적인 향락”(egoistischer Genuß)을 누리며 살아 간다.¹⁶⁾ 그래서 나탈리에의 백모였던 “아름다운 영혼”도 자신의 문제만을 끌어 안은 채 비타협적인 자세로 사회와는 고립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환경이 달랐더라면 세상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끼쳤을거예요. 너무 허약한 건강, 아마 당시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 이와 더불어 도덕적 종교적인 불안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빛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몇 안되는 친구들과 저에게만 특별히 길을 밝혀준 등불이었습니다.

Eine sehr schwache Gesundheit, vielleicht zu viel Beschäftigung mit sich selbst, und dabei eine sittliche und religiöse Ängstlichkeit ließen sie das der Welt nicht sein, was sie unter andern Umständen hätte werden können. Sie war ein Licht, das nur wenigen Freunden und mir besonders leuchtete. (HA, 517)

총명한 사람이 “자신에게는”(für sich) 귀중할지는 몰라도 “전체를 위해서는”(fürs Ganze) 별로 귀중하지 않다는 로타리오의 지적(HA, 432)은 당시의 사회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찾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교양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위한 수단이나 재화나 기타 모든 종류의 행복을 위한 처방들만을 원하고 있어요.

Nicht allen Menschen ist es eigentlich um ihre Bildung zu tun: viele wünschen nur so ein Hausmittel zum Wohlbefinden, Rezepte zum Reichtum und zu jeder Art von Glückseligkeit. (HA, 549)

13) J. Schmidt, Die Geschichte des Genie-Gedankens, S. 338: Außenseiter eines anders ausgerichteten Kosmos.

14) G.-L. Fink, a. a. O., S. 12.

15) Ebd. S. 13.

16) Ebd.

Ⅲ. 조화된 교양에의 길과 빌헬름의 오류

한편 빌헬름은 극단에서 사귀게 된 친구 라에르테스의 도움으로 “현실 세계의 실정과 일상의 삶” (die Zustände und das tägliche Leben der wirklichen Welt)에 대해서 전에 없이 관심을 갖게 되고 참된 기쁨을 최초로 경험하게 된다. (HA, 276) 현실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관점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그런 순간에 세를로로부터 유리한 조건의 계약 요청을 받게 되자 빌헬름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인다.

자 또다시 어린 시절에 나에게 나타났던 두 여인을 두고 갈림길에 서게 되었구나. 한쪽은 그 무렵처럼 그렇게 하찮은 것 같지가 않고 다른쪽은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다. 너는 이들 중 한 여인을 따르는 것이 일종의 내적인 사명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 양쪽이 다 외부적인 유혹은 상당히 강하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네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군. 너는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외부로부터 그 선택을 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 그러나 너를 제대로 살펴보면 상업과 이득 그리고 재산 쪽으로 너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다만 외부의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깊은 너의 욕구는 너 자신 속에 내재하고 있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고 있는 소질을 -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 발전시켜 완성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놓아 키우고 있다.

Da steh' ich nun (...) abermals am Scheidewege zwischen den beiden Frauen, die mir in meiner Jugend erschienen. Die eine sieht nicht mehr so kümmerlich aus wie damals, und die andere nicht so prächtig. Der einen wie der andern zu folgen, fühlst du eine Art von innerm Beruf, und von beiden Seiten sind die äußern Anlässe stark genug: es scheint dir unmöglich, dich zu entscheiden; du wünschst, daß irgendein Übergewicht von außen deine Wahl bestimmen möge, und doch, wenn du dich recht untersuchst, so sind es nur äußere Umstände, die dir eine Neigung zu Gewerb, Erwerb und Besitz einflößen, aber dein innerstes Bedürfnis erzeugt und nährt den Wunsch, die Anlagen, die in dir zum Guten und Schönen ruhen mögen, sie seien körperlich oder geistig, immer mehr zu entwickeln und auszubilden. (HA, 276)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던 상업이 그렇게 형편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과 그렇듯 화려하게 보였던 무대 위의 삶도 그렇게 화려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한편 세를로는 사람이 지닌 재능을 활용할 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미농과 하아프를 잘 연주하는 노인과 바이올린을 꽤 잘 다루는 라에르테스, 이들 세 사람으로 자그마한 악단을 조직했다. 그래서 빌헬름은 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흡족하게 지내고 있을 때에 친구이자 매부인 베르너에게서 부친사망 소식을 알리는 편지를 받는다. 그 편지에서 베르너는 함께 재산을 불리자고 한다. 베르너의 편지를 받은 빌헬름은 “그가 원했던 교양은 무대 위에서만 완성시킬 수 있음” (daß er nur auf dem Theater die Bildung, die er sich zu geben wünschte, vollenden könne) (HA, 289) 확신하게 된다. 상인인 친구

베르너의 “실용주의적이며 향락주의적인 신념”(das utilitaristisch-epikureische Glaubensbekenntnis)은 “재발견된 자신의 시민성의 일그러진 모습”(ein Zerrbild seines eigenen wiedergefundenen Bürgertums)으로 보임으로써 빌헬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품이라는 귀족주의적 이상”(das aristokratische Ideal der schönen Erscheinung)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¹⁷⁾ 이렇게 해서 빌헬름은 자신의 삶의 “외부에 있는 대상”(the external object)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자아성취”(his own personal self-fulfilment), 곧 교양을 목표로 삼게 된다.¹⁸⁾ 빌헬름은 “시민계급의 평가절하와 이와 관련된 귀족의 이상화”¹⁹⁾를 그 특징으로 하는 교양이상을 지닌 채 연극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의 교양은 당시에는 귀족에게만 허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극무대는 평민 출신인 자신이 귀족처럼 활동하고 개성을 도야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적인 활동공간으로 여겨졌다.

나의 출신성분 때문에 거부된 나의 본성의 조화된 도야에 대한 애착이 이제는 억제할 수가 없게 되었네. (...) 공인(公人)이 되고 싶은 나의 욕구, 넓은 사회에서 호감을 사고 활동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억제할 수 없게 되고 있음을 이제 자내에게 부인하지 않겠네. (...)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나로서는 무대 위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이 영역에서만 내가 바라는대로 활동하고 도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내도 알겠지. 교양있는 사람은 무대 위에서라면 마치 상류 계층에 있어서와 같이 아주 개성적으로 자신의 멋을 드러내 보인다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정신과 육체가 보조를 맞추어야 하네. 그러나 나는 실재로서든 가상으로서든 무대 위에서든 그 어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해낼 수 있을 걸세.

Ich habe nun einmal gerade zu jener harmonischen Ausbildung meiner Natur, die mir meine Geburt versagt, eine unwiderstehliche Neigung. (...) Nun leugne ich Dir nicht, daß mein Trieb täglich unüberwindlicher wird, eine öffentliche Person zu sein, und in einem weitem Kreise zu gefallen und wirken. (...) Du siehst wohl, daß das alles für mich nur auf dem Theater zu finden ist, und daß ich mich in diesem einzigen Elemente nach Wunsch rühren und ausbilden kann. Auf den Brettern erscheint der gebildete Mensch so gut persönlich in seinem Glanz als in den obern Klassen: Geist und Körper müssen bei jeder Bemühung gleichen Schritt gehen, und ich werde da so gut sein und scheinen können als irgend anderswo. (HA, 291-2)

그러나 이 새로운 교양이상은 베르너의 편지에 대한 “일방적인 반응”(eine einseitige Reaktion)이었으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이상”(ein egoistisches Ideal)이었다.²⁰⁾ 또한 이 이상은 화자가 선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빌헬름이 베르너에게 쓴 편지에서 지극히 사적으로 밝힌 것이기에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었

17) Ebd., a. a. O., S. 15.

18) Roy Pascal, The German Novel, S. 7.

19) G.-L. Fink, a. a. O., S. 15: die Abwertung des Bürgertums und die damit verbundene Idealisierung des Adels.

20) Ebd., S. 19.

다. 그래서 훗날 주인공의 결정적인 오류를 화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외부 사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내면적인 교양을 증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빌헬름은 몰랐다.

Er (Wilhelm) wußte nicht, daß es die Art aller der Menschen sei, denen an ihrer innern Bildung viel gelegen ist, daß sie die äußeren Verhältnisse ganz und gar vernachlässigen. (HA, 490)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평민이라도 조화된 개성의 교양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들어선 연극의 세계는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세를로의 계약에 서명하는 그의 자세부터가 문제였다. 빌헬름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를 모른 채” (ohne zu wissen, was er tat) (HA, 293) 서명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빌헬름이 무대에 서는 조건 중의 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빌헬름은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햄릿을 상연하기를 원했지만, 세를로는 극단의 사정, 관객의 수준 등을 고려하고, 또한 자신의 예리한 감식안을 토대로 하여 “타기해야 할 가위질”을 주장했다. 결국 빌헬름의 양보로 두 사람은 빌헬름이 새로 대본을 쓰기로 했다.

연극배우가 되려는 빌헬름의 결정은 “지극히 막연하고 현실성이 결여된”²¹⁾ 것이었다.

빌헬름은 아직도 사랑하는 아가씨나 존경하는 문필가에게도 그 어떤 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시절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시절에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도 그런 완전한 조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Wilhelm befand sich noch in den glücklichen Zeiten, da man nicht begreifen kann, daß an einem geliebten Mädchen, an einem verehrten Schriftsteller irgend etwas mangelhaft sein könne. Unsere Empfindung von ihnen ist so ganz, so mit sich selbst übereinstimmend, daß wir uns auch in ihnen eine solche vollkommene Harmonie denken müssen. (HA, 293)

이에 비하면 세를로는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와 반대로 세를로는 취미삼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려냈다. 그의 날카로운 오성은 어떤 예술 작품이든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완벽하지 못한 점만을 알아내려 드는 것이 보통이었다.

Serlo hingegen sonderte gern und beinah zu viel: sein scharfer Verstand wollte in einem Kunstwerke gewöhnlich nur ein mehr oder weniger unvollkommenes Ganze erkennen. (HA, 294)

그러나 빌헬름은 관객들의 수준 등을 거론하며 타협적인 생각을 타나내는 세를로에 대해 미래

21) N. Ratz, Der Identitätsroman, S. 74 : wie vage und wenig realitätsbezogen.

지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

그러나 그게 현재상태 그대로여야 합니까, 모든 것이 언제나 현재상태 그대로여야 한단 말입니까?

aber muß es denn auch so bleiben, muß denn alles bleiben, was ist? (HA, 295)

관객의 취미에 대해서도 빌헬름은 이상적인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갖고 싶어하는 감정”(die Empfindungen (...), die sie haben wollen, und nicht die, die sie haben sollen)을 일으키는 것은 그릇된 것이며, 훌륭한 것을 보여 줌으로써 “훌륭한 것에 대한 감정과 취미”(Gefühl und Geschmack für das Gute)를 점차 길러줘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HA, 314) 이렇듯 빌헬름은 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애를 썼다.

그러다가 그는 감독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그런데 빌헬름이 감독의 일을 넘겨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대부분의 배우들은 버릇 없이 굴기 시작했다. 빌헬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질서와 정확성을 기하고자 했고, 특히 모든 기계적인 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해낼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 동안 거의 이상적으로 견지되었던 전체 상황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엉망이 되고 말았다.

유감스럽게도 빌헬름이 천신만고 끝에 그 직업의 모든 필요조건을 터득했고, 자기의 인격과 활동도 완전히 그 직업에 적용하도록 수업을 쌓은 바로 그 순간에, 드디어 그 슬픈 순간에 빌헬름에게는 이 일이 그 어떤 다른 일보다도 들여야 할 시간과 정력의 댓가를 받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다. 일은 번거로우면서도 보수는 적었던 것이다.

Und leider in dem Augenblicke, als Wilhelm durch Mühe, Fleiß und Anstrengung sich mit allen Erfordernissen des Metiers bekannt gemacht und seine Person sowohl als seine Geschäftigkeit vollkommen dazu gebildet hatte, schien es ihm endlich in trüben Stunden, daß dieses Handwerk weniger als irgendein anders den nötigen Aufwand von Zeit und Kräften verdiene. Das Geschäft war lästig und die Belohnung gering. (HA, 345)

빌헬름은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연극배우들과 함께 보낸 시절은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그들과 함께 보낸 시절을 돌아 보면 끝없는 공허 속을 들여다 보는 것 같군요.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leider wenn ich an jene Zeit zurückdenke, die ich mit ihr zugebracht habe, so glaube ich in ein unendliches Leere zu sehen; es ist mir nichts davon übriggeblieben. (HA, 422)

또한 빌헬름은 자신의 중대한 오류를 일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나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교양을 찾아 헤매었고, 전혀 소질이 없는 재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daß ich da Bildung suchte, wo keine zu finden war, daß ich mir einbildete, ein Talent erwerben zu können, zu dem ich nicht die geringste Anlage hatte. (HA, 495)

교양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당시의 연극계에 그 교양이 없음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빌헬름은 연극계에 발을 들여 놓기 전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무척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진지하게 노력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소 (...)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부정하다'고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경우에도 세상이 배은망덕하다는 사실은 결코 발견하지 못했소.

Ich habe nie gezweifelt, daß man sein Fortkommen in der Welt finden könne, wenn es einem Ernst ist (...) 'Die Welt ist undankbar', sagen viele; ich habe nie gefunden, daß sie undankbar sei, wenn man auf die rechte Art für sie zu tun weiß. (HA, 66)

청년 빌헬름의 희망적인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져 버린 것이다.

처음에 빌헬름이 믿음을 지녔던 사회는 사실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회였다. 미술계의 경우는 이른바 "효과" (Effekt) (HA, 573) 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뛰어난 예술품" (vortreffliche Kunstwerke) (HA, 572) 이 아주 드물었다. 그리고 빌헬름이 실제로 겪어 본 연극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신의 일을 생각 없이 행하며, 요구사항은 끝이 없었다. "오로지 지극히 하찮은 자부심과 지극히 웅졸한 이기심" (nur die kleinlichste Eigenliebe, der beschränkteste Eigennutz) (HA, 434) 때문에 그들은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다만 "세상에 대한 무지" (Unbekanntschaft mit der Welt) 때문에 빌헬름이 몰라서 그렇지, 연극배우들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allgemein) 것이었다. (HA, 434) 사실 당시의 귀족 남자들은 지극히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바깥일을 전담하게 되어 있는 남자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행했으면 할 경우에도 정략적일 수 밖에 없으며, 솔직해지고 싶을 때에도 숨기지 않을 수 없고, 정직해지고 싶을 때에도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다" (immer nur politisch sein muß, wo er gern vernünftig wäre, versteckt, wo er offen, falsch, wo er redlich zu sein wünschte) (HA, 452).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큰 일을 도모하면서는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보일 정도로 당시의 사회현실은 뼈뿔어져 있었던 것이다.

IV. '보이지 않는 손'과 해피엔딩

그러나 빌헬름의 이 오류는 숨어서 지켜 보며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준 교육자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유익하게 작용하게 된다. 빌헬름이 헛된 희망을 안고 연극배우가 되어 실제로 겪어 본 연극인들은 모순투성이였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아르노의 도움으로 인간일반에 대한 빌헬름의

지식으로 확대된다. 다음과 같은 신부의 말대로 그 어떤 경험이란 빌헬름의 '교양'에 보탬이 된 것이다.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무엇이든 그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교양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Darin irren Sie sich; alles, was uns begegnet, läßt Spuren zurück, alles trägt unmerklich zu unserer Bildung bei. (HA, 422)

아우렐리아와 함께 세를로의 극단에서 보냈던 시절을 돌아보며 허무를 느끼는 빌헬름에게 신부가 한 말이다. 빌헬름은 그 시절은 “끝없는 공허”(ein unendliches Leere)와 같이만 보이고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그 시절을 원망했었다.

그러나 연극계에서의 활동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베르너는 자기 친구가 키가 더 커졌고 더 튼튼해졌으며 더 느릅해졌다고 했다. 그의 인품이 더 세련되었으며 그의 몸가짐이 더 좋아졌다는 것이었다. (...)

그 마음씨 좋은 사람(베르너)은 진보했다기보다는 퇴보한 것 같았다. 그는 전보다 훨씬 여윌었으며 그의 여윈 얼굴은 더욱 가늘퍼지고 그의 코는 더 길어진 것 같았으며 이마와 관자놀이 부분의 머리털은 다 빠지고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거칠고 요란했으며 그의 움푹 들어간 가슴, 앞으로 굽은 어깨, 핏기 없는 볼 등을 보면 그가 견디기 힘든 우울증 환자임을 누구라도 알 수가 있었다.

Werner behauptete, sein Freund sei größer, stärker, gerader, in seinem Wesen gebildeter und in seinem Betragen angenehmer geworden. (...)

Der gute Mann(Werner) schien eher zurück als vorwärts gegangen zu sein. Er war viel magerer als ehemals, sein spitzes Gesicht schien feiner, seine Nase länger zu sein, seine Stirn und sein Scheitel waren von Haaren entblößt, seine Stimme hell, heftig und schreiend, und seine eingedrückte Brust, seine vorfallenden Schulter, seine farblosen Wangen ließen keinen Zweifel übrig, daß ein arbeitsamer Hypochondrist gegenwärtig sei. (HA, 498f.)

빌헬름이 연극배우 생활을 청산하고 난 뒤 처음 만난 두 사람에게 대한 묘사다. 이 대목을 보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뒷부분에서는 베르너의 “일그러진 모습”(das Zerrbild)²²⁾이 잘 그려지고 있다. 신부의 말대로 빌헬름은 연극계에서의 오류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이다.

빌헬름의 오류를 지켜보며 참된 길로 이끈 신부(Abbe)는 독특한 교육관을 지니고 있었다.

교육자의 의무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류를 남김없이 맛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

22) P. Pütz, Der Roman der Klassik, S. 254.

로 그것이 스승의 지혜입니다.

Nicht vor Irrtum zu bewahren, ist die Pflicht des Menschenerziehers, sondern den Irrenden zu leiten, ja ihn seinen Irrtum aus vollen Bechern ausschöpfen zu lassen, das ist Weisheit der Lehrer. (HA, 494f.)

이 신부는 "오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만 치유될 수가 있다." (der Irrtum könne nur durch das Irren geheilt werden) (HA, 550)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의 이런 교육관을 지탱해 주는 원리의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메커니즘은 기만당하지 않으며, 우연과 오류들을 야기하면서, 바로 이들 우연과 오류들을 통해서 지탱된다는 점"²³⁾이다.

지극히 이상적인 교육관을 지닌 이런 이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다시 말하자면 이상적인 사회가 바로 빌헬름의 교양에의 길이 결국 성공할 수 있게 된 절대적인 전제가 된다.

그런데 이 신부를 중심으로 하여 로타리오의 장원에 있는 한 오래된 탑의 한 비밀스러운 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탑의 모임의 구성원들은 당시의 사회와는 구별된, 다시 말하자면 고립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우선 신부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다닌다.

그 당시 저는 당신을 루터파의 시골목사로 여겼는데, 지금은 카톨릭교회의 신부처럼 보이는군요.

(...) damals hielt ich Sie für einen lutherischen Landgeistlichen, und jetzt sehen Sie mir eher einem katholischen ähnlich. (HA, 421)

야르노는 유일한 친구이며 은인인 백작이 죽은 후로는 "세상과 세상일에서" (aus der Welt und aus allen weltlichen Verhältnissen) (HA, 433) 물러나 있었다. 그는 이 백작을 보필하는 기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뒤로는 참다운 친구가 없는 세상을 등지고 새로운 이상 사회를 꿈꾸며 살았다.

로타리오는 "충명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귀중하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별로 귀하지 않다" (Ein verständiger Mensch ist viel für sich, aber fürs Ganze ist er wenig.) (HA, 432)는 관점에서 당시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현실을 적절히 꼬집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현실을 목전에 두고 로타리오는 "비상한 일" (das Außerordentliche)을 할 결심을 굳힌다. (HA, 432)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개혁" (die Veränderungen) (HA, 431)을 실행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요컨대 "탑의 모임" (Turmgesellschaft)은 당시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회와는 철저히 구분된 "낡은 탑" (alte(n) Turm) (HA, 564)에 본부를 둔 비현실적인 모임인 것이다.²⁴⁾

23) St. Blessin, a. a. O., S. 209f. : Daß (...) der Marktmechanismus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sich nicht betrügen läßt und, Zufälle und Irrtümer hervorbringend, sich durch diese gerade erhält.

24) 물론 로타리오의 농지개혁은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는 해도 18세기

바로 이 탐의 모임의 구성원들이 중요한 대목에서 빌헬름을 도와준다. 우연인 것으로 보였던 이런 만남들이 결말에서 보면 오히려 "필수적인 경험들"(notwendige Erfahrungen)²⁵⁾로 드러난다. 소설 전체를 놓고 보면 우연도 순수한 우연이 아닌 것이다. 작가 괴테의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조화에의 의지"(der idealisierende Harmoniewille)²⁶⁾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체성추구의 행복한 결말"(das glückliche Ende der Identitätssuche)²⁷⁾도 처음부터 이렇게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런 노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현실이 유라헤서가 아니라 히려 이런 사회현실과는 정반대가 되는 성격의 단체인 '탐의 모임'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870년에 영국의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90)에 의해서 창시된 고전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은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직시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구세주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소설을 집필할 때 괴테는 바로 이 고전 경제학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우연을 "종합이라고 하는 고전주의의 원리"(das klassische Prinzip der Synthesis)²⁸⁾에 따라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등장하고 있는 극장, 즉 예술이 번창일로로 상업계에서 대물림이 약속된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 전인격적인 교양을 지향했던 한 젊은이에게 훌륭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바로 이와 같은 고전주의의 형상화원리에 의한 것이었다.²⁹⁾

결국 이 소설의 결말은 자본주의 시장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 "특별협약"(Sonderabsprache)³⁰⁾인 셈이다. 이것으로도 이 소설이 특별한 의도의 산물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오로지 빌헬름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빌헬름은 겸허한 자세를 요구받는다.

빌헬름은 나탈리에를 사랑하게 된다. 이제 나탈리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das eine ..., das dem Menschen alles übrige wert ist)(HA, 571)가 되었다. 바로 이 순간 신부는 나탈리에의 백부의 친구였던 이태리 후작의 독일 여행을 위한 통역 및 안내자로 빌헬름

말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제몽전제군주였던 프리드리히 제왕을 숭배했던 요셉 24세는, 광범위한 개혁은 실패했지만, 1781년 합스부르크 가의 전 영토에서 농노해방을 단행했으며, 이 영향으로 1783년에는 후작이었던 칼 프리드리히 폰 바덴도 농노해방을 단행했다. 그리고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에서는 1760년대에 이미 농업제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Vgl. R. Rürup, Deutschland im 19. Jahrhundert 1815 - 1871, Göttingen 1984, S. 37f.) 다만 이 소설에서는 '탐의 모임'이 지극히 예외적인 단체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5) N. Ratz, a. a. O., S. 64.

26) Ebd.

27) Ebd., S. 65.

28) P. Pütz, a. a. O., S. 248.

29) Cf. P. Pütz, Der Roman der Klassik, S. 254: "예술은 빌헬름 마이스터를 담당한 현실에서 끌어 내어 자유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인도함으로써 감잡한 현실로부터의 매우 중대한 해방을 수행하고 있다." (...leistet die Kunst die eminent wichtige Befreiung aus der Enge der Realität, indem sie Wilhelm Meister aus der Beschränktheit des Faktischen in die Freiheit des Möglichen führt.)

30) St. Blessin, a. a. O., S. 225.

이 적절하다며 제안한다. 그러나 나탈리에나 아들 펠릭스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빌헬름은 이들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을 가능한 한 빨리 떠나 보내려 하는 것으로 알고는 차라리 자신의 아들 펠릭스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신부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것이다.

그러나 미농의 유해와 하아프타는 노인의 일로 출발을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미농의 장례식날 바로 미농의 시신을 본 이 후작이 미농이 바로 자신의 질녀임을 알게 된다. 후작은 미농을 돌봐 준 빌헬름을 각별히 생각하게 되고 미농의 유산까지 물려 받게 될 것임을 밝힌다. 이 후작이 감사의 표시로 이태리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테레제는 당장 빌헬름이 그 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빌헬름은 미농으로 인한 뜻밖의 이 행운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친구들과 그들의 인도에 전적으로 맡기겠소. (...)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요. 내가 붙잡고자 했던 것은 포기할 수 밖에 없고 분에 넘치는 행운이 나에게 굴러 들고 있소.

ich überlasse mich ganz meinen Freunden und ihrer Führung (...), es ist vergebens, in dieser Welt nach eigenem Willen zu streben. Was ich festzuhalten wünschte, muß ich fahrenlassen, und eine unverdiente Wohltat drängt sich mir auf. (HA, 594f.)

그래서 탐의 모임의 구성원들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한다.

빌헬름은 사리사욕을 떠난 선행에 대한 "가장 크고 가장 멋진 보답" (die höchsten und schönsten Zinsen) (HA, 594) 이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 이태리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신부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낙관적인 체념" (optimistische Entsagung)³¹⁾을 통해서 빌헬름은 탐의 모임에 영입되고 그토록 사랑했던 나탈리에를 아들 펠릭스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부인으로 맞게 되는 행운을 얻는다. 귀족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교양을 성취한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거역하면서까지 자신의 오성을 "폭넓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ins Weite und Allgemeine) 형성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극히 응졸하고 지극히 지겨운 인간" (der beschränkteste und unerträglichste Mensch)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HA, 539) 바로 이때문에 보편성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적인 노력 자체는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의 경우 교양은 예정된 조화 상태의 사회, 즉 "행복한 여건" (die glücklichen Umstände)³²⁾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이 소설의 결말에서도 완결된 교양을 갖춘 주인공의 모습은 형상화되지 않고 있다. 주인

31) N. Ratz, a. a. O., S. 77.

32) Ebd., S. 78.

공 마이스터는 여전히 “생도”(Lehrling)³³⁾일 뿐 자신이 얻은 “왕국의 가치”(Wert eines Königreichs)는 모른 채 무한한 행복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HA, 610)

V. 결 론

빌헬름은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왕국을 얻게 된 키시의 아들 사울”(Saul, der Sohn Kis, der ausging, seines Vaters Eselinnen zu suchen, und ein Königreich fand) (HA, 610)과 같은 행운아였다.³⁴⁾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고 다만 초월적인 존재의 예정에 의해 왕이 된 사울처럼 빌헬름은 탐의 모임의 예정과 그 인도에 의해 과분한 행복을 얻게 된 것이다.

물론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소년이었듯이 빌헬름도 여러가지로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였다. 무엇보다도 빌헬름은 당시의 많은 젊은이와는 달리 다른 사람도 위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이런 빌헬름조차도 수업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을 받은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의 능력, 목표, 의무 등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HA, 550) 여호와의 선지사 사무엘이 여호와의 가르침에 따라 사울을 극진히 대접할 때에도 사울은 영문을 모르고 있었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고 난 이후에야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울은 여화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빌헬름도 탐의 모임의 구성원들의 도움과 가르침을 통해서야 비로소 지향했던 교양을 이루고 또한 나탈리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마리아네가 낳은 자신의 아들 펠릭스와 더불어 어엿한 가정을 이루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소설의 경우 교양이란 “인간 본성의 유기적 발전”(organische Entfaltung menschlicher Natur)을 의미하며, “사회성”(Gesellschaftlichkeit)과 “개성”(Individualität)을 동시에 포함한다.³⁵⁾ 사실 개인적인 교양과 프랑스 혁명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의 관계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시대의 관심사”(ein tieferes Anliegen der Epoche)³⁶⁾였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비로소 인류를 이루고 모든 힘이 협력하여 비로소 세계를 이룹니다.
(...) 모든 재능이 다 소중하며 발전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것만을 또 다른 어떤 이는 쓸모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데 이 두 사람이 비로소 한 인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33) M. Swales, Unverwirklichte Totalität, S. 98.

34) 사울은 이스라엘민족의 첫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 야훼의 예정에 의하여 왕이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민족의 왕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구약 사무엘상 제9장 참조.

35) N. Ratz, a. a. O., S. 65.

36) R. Selbmann, Theater im Roman, S. 78.

Nur alle Menschen machen die Menschheit aus, nur alle Kräfte zusammengenommen die Welt. (...) Jede Anlage ist wichtig, und sie muß entwickelt werden. Wenn einer nur das Schöne, der andere nur das Nützliche befördert, so machen beide zusammen erst einen Menschen aus. (HA, 552)

결국 이 소설에서의 교양이란 "타고 난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개인이 예정된 조화 상태의 사회 속에 유기적으로 편입되는 것"³⁷⁾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주인공 빌헬름이 이런 의미의 교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사회에서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예정된 조화 상태의 사회"인 탐의 모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교양소설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소설은 흔히 주인공 개인의 노력과 외부의 유리한 여건의 합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외부의 유리한 여건이란 당시의 사회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회인 탐의 모임의 구성원들에 의해 조성된 이상적인, 따라서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이 소설의 구성을 보면 "자의적이고 우연적이며 단편적인 구성"³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의적이고 우연적인 요소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소설 본래의 통일성은 그 "예술성" (Kunstcharakter)³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소설이 교육적 차원과 연속성을 갖추게 된 것은 주인공 빌헬름 때문이 아니라 "비밀의 탐 모임이라고 하는 전적으로 외부적인 장치"⁴⁰⁾ 때문이었다. 당대의 삶을 대상으로 한 미적 형상화와 해석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⁴¹⁾ 요컨대 이 소설의 결말에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교양이상의 성취가능성은 "미적인 믿음의 표현" (Ausdruck des ästhetischen Glaubens)⁴²⁾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괴테의 이 "미적인 믿음", 즉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낙관론은 당시에는 탐의 모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능성의 사회를 전제로 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 소설은 개인의 교양이상은 이상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빌헬름은 가장 행복한 운을 타고 난 사람이었기에 이 모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신은 과거의 어리석은 일들을 후회하거나 물리고 싶어 할 필요가 없소. 인간으로서 그 이상 더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없소.

37) N. Ratz, a. a. O., S. 65: Entwicklung angeborener Fähigkeiten und organische Einfügung des Individuums in eine Gesellschaft im Zustand prästablierter Harmonie.

38) Cl. Heselhaus, Die Wilhelm Meister-Kritik der Romantiker und die romantische Romantheorie, S. 113: Willkürliche, Zufällige und Fragmentarische der Komposition.

39) Ebd., S. 114.

40) D. H. Miles, The Picaro's Journey to the Confessional, S. 982: the wholly outer device of the secret Tower Society.

41) 일반적으로 교양소설에서 볼 수 있는 미적인 요소는 "사회 비판의 요소" (an element of social criticism)로 간주되고 있다. Susan L. Cocalis, The transformation of Bildung from an image to an ideal, S. 408.

42) Cl. Heselhaus, a. a. O., S. 114.

Du wirst keine deiner Torheiten bereuen und keine zurückwünschen, kein glücklicheres Schicksal kann einem Menschen werden. (HA, 495)

이렇듯 빌헬름이 탐의 모임의 도움으로 교양이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지극히 커다란 행운이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와 개인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참 고 문 헌

I. Text :

Goethe, Johann Wolfgang : 「Wilhelm Meisters Lehrjahre」. Hamburgerausgabe in 14 Bänden. Hg. v. Erich Trunz. Bd. 7. München 1982.

II. Sekundäre Literatur :

- Beddow, Michael : The Fiction of Humanity. Studies in the Bildungsroman from Wieland to Thomas Mann. Combridge 1982.
- Blessin, Stefan : Die Romane Goethes. Königstein/Ts. 1979.
- Brinkmann, Karl : Erläuterungen zu J. W. v. Goethe : Wilhelm Meisters Lehrjahre /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Hollfeld 1986 (7. Auflage).
- Cocalis, Susan L. : The transformation of Bildung from an image to an ideal. In : Monatshefte 1978, Heft 4, S. 399ff.
- Emmel, Hildegard : Geschichte des deutschen Romans. Bd. I. Bern 1972.
- Esselborn-Krumbiegel, H. : Der "Held" im Roman. Formen des deutschen Entwicklungsromans im frühen 20. Jahrhundert. Darmstadt 1983.
- Fink, Gonthier-Louis : Die Bildung des Bürgers zum "Bürger". Individuum und Gesellschaft in "Wilhelm Meisters Lehrjahren". In : Recherches germaniques 2 (1972), S. 3-37.
- Gallmeister, Petra : Der Bildungsroman. In : Otto Knörrich (Hg.), Formen der Literatur. Stuttgart 1981, S. 38-48.
- Hahn, Karl-Heinz : Zeitgeschichte in Goethes Roman 'Wilhelm Meisters Lehrjahre'. In : P. Chiarini und W. Dietze (Hg.) : Deutsche Klassik und Revolution, Rom 1981, S. 169ff.
- Heselhaus, Clemens : Die Wilhelm Meister-Kritik der Romantiker und die romantische Romantheorie. In : H. R. Jauß (Hg.) : Nachahmung und Illusion, München 1969, S. 113ff.

- Hönisch, Jochen : Gott, Geld und Glück. Zur Logik der Liebe in den Bildungsromanen Goethes, Kellers und Th. Manns. Frankfurt a.M. 1983
- Jacobs, Jürgen : Wilhelm Meister und seine Brüder. Untersuchungen zum deutschen Bildungsroman. München 1972.
- Jacobs, J. und Krause, Markus : Der deutsche Bildungsroman. Gattungsgeschichte vom 18. bis zum 20. Jahrhundert. München 1989.
- Koopmann, Helmut (Hg.) : Handbuch des deutschen Romans. Düsseldorf 1983.
- May, Kurt : 'Wilhelm Meisters Lehrjahre', ein Bildungsroman? In : DVjs. 31 (1957), S. 1ff.
- McInnes, E. : Zwischen 'Wilhelm Meister' und 'Die Ritter vom Geist'. In : DVjs. 43 (1969), S. 487-514.
- Miles, D.H. : The Picaro's Journey to the Confessional. The Changing Image of the Hero in the German Bildungsroman. In : PMLA 89 (1974), S. 980-992.
- Minden, M. R. : The Place of inheritance in the Bildungsromane. In : DVjs. 57 (1983) 1, S. 33-63.
- Pascal, Roy : The German Novel. Toronto 1956.
- Pütz, Peter : Der Roman der Klassik, in : H. Koopmann (Hg.), Handbuch des deutschen Romans, Düsseldorf 1983, S. 244-259.
- Ratz, Norbert : Der Identitätsroman. Eine Strukturanalyse. Tübingen 1988.
- Rhöse, Franz : Konflikt und Versöhnung. Untersuchungen zur Theorie des Romans von Hegel bis zum Naturalismus. Stuttgart 1978.
- Schmidt, Jochen : Die Geschichte des Genie-Gedankens in der deutschen Literatur. Philosophie und Politik 1750-1945. Bd. 1. Darmstadt 1985.
- Selbmann, Rolf (Hg.) :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Bildungsromans. Darmstadt 1988.
- Ders. : Der deutsche Bildungsroman. Stuttgart 1984.
- Ders. : Theater im Roman. Studien zum Strukturwandel des deutschen Bildungsromans. München 1981.
- Sorg, Klaus-Dieter : Gebrochene Teleologie. Studien zum Bildungsroman von Goethe bis Thomas Mann. Heidelberg 1983.
- Staiger, Emil : Die Zeit als Einbildungskraft des Dichters. Untersuchungen zu Gedichten von Brentano, Goethe und Keller. Zürich 1953.
- Swales, Martin : Utopie und Bildungsroman. In : W. Volkamp (Hg.), Utopieforschung. Interdisziplinäre Studien zur neuzeitlichen Utopie, Bd. 3, Stuttgart 1983, S. 218-226.

- Ders. : Unverwirklichte Totalität. Bemerkungen zum Deutschen Bildungsroman. In : Paulsen, W. (Hg.) : Der deutsche Roman und seine historischen und politischen Bedingungen, Bern und München 1977, S. 91ff.
- Ders. : The German Bildungsroman from Wieland to Hesse. Princeton 1978.
- Ders. : Irony and the novel. Reflections on the German 'Bildungsroman'. London 1979.
- Ders. : Der deutsche Bildungsroman in komparatistischer Sicht. In : Jahrbuch für Internationale Germanistik Reihe A, Bd 8, 1980, S. 117-124.
- Voßkamp, Wilhelm : Der Bildungsroman als literarisch-soziale Institution. In : Wagenknecht, Ch(Hg.) : Zur Terminologie der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1988, S. 337-352.
- Well, Hans : Die Entstehung des deutschen Bildungsprinzips. Bonn 1967.

Zusammenfassung

Zum Verhältnis zwischen Individuum und Gesellschaft
im Goethes Roman 'Wilhelm Meisters Lehrjahre'

Sung-Hoe Song

Im allgemeinen gilt Goethes Roman 'Wilhelm Meisters Lehrjahre' als der klassische Bildungsroman, der den deutschen Bildungsroman repräsentiert. Die meisten Interpreten haben ihn als glücklich endenden Bildungsroman verstanden, und nur mit dieser Interpretation kann der Roman richtig verstanden werden. Gezeigt werden soll, wie das Verhältnis zwischen Individuum und Gesellschaft im 'Meister' gestaltet ist.

Die Bürgerwelt um den Helden wird als allzu beschränkt beschrieben. Damals erstreben fast alle verständigen Menschen nur egoistischen Genuß. Wilhelm aber wird die geistliche Beschränktheit des durchschnittlichen Bürgertums völlig bewußt.

Er versucht auf dem Theater sein ganzheitliche persönliche Bildung zu vollenden. Aber auch in der Theaterwelt kann er seine gewünschte Bildung nicht finden. Also darf man sagen, Wilhelms Lebenslauf als Schauspieler sei ein Irrtum.

Aber Wilhelm wird durch die geheime Turmgesellschaft geleitet. Durch die Einwirkung dieser Gesellschaft gelingt es ihm doch noch, die gewünschte Bildung zu erreichen. Man kann also sagen, die Erfüllung des Ziels setze die schöne Gesellschaft, in der Turmgesellschaft repräsentiert, voraus.

Hierbei muß man in Betracht nehmen, daß die Turmgesellschaft eine heimlich wirkende und ideale Gesellschaft ist. Sie besteht aus Adligen, die aus der Welt und aus allen weltlichen Verhältnissen zurückgetreten sind.

Fast alle Zufälle, die auf die Bildung von Wilhelm förderlich gewirkt haben, zeigen sich, vom Ende des Romans her gesehen, als völlig notwendig. Durch die Turmgesellschaft wurde Wilhelm nämlich ganz planvoll geleitet. Zwar ist Wilhelm ein Jüngling von gutem Charakter: im Gegensatz zu den zeitgenössischen Jungen hat er ein offenes Herz für die anderen. Er sieht die edelste Freude darin, die Menschen von ihren Torheiten zu heilen. Aber in diesem Roman ist die aus den, dem alltäglichen bürgerlichen Leben abgewandten, Adligen bestehende Turmgesellschaft als die notwendige Voraussetzung für den Erfolg von Wilhelms Bildungsstreben beschrieben.

Daraus könnte man den Schluß ziehen, die in diesem Roman gestaltete bürgerliche Gesellschaft ist für die Bildung eines Individuums sehr ungünstig.